

**<지난주 말씀>**

▶주님이 이번주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물어서 같이 흘러가며 사는 자가 아니고 저들을 살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충성했는데 이기지 못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죠. 충성된 자는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싸우란 말입니까? 아니죠, 이기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내 소속과 배경을 찾아서 내 인생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찾아서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 정체성에 대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는 어디 있습니까?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관을 얻는 방법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충성은 상하 복종이 아닙니다. 내 생을 어디에 걸 것이냐,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 조건의 결과로 생명의 관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은 생명의 관에 맞추는 충성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데 충성해버리면 생명의 관에 연결이 안되는 충성이 되고 나를 실패케 하는 충성이 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세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2:4). 충성 이전에 첫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연애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어떤 첫 사랑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첫 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첫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5). 만일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는 회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2:7).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번째로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2:10). 왜요?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관이 있는 이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11). 이 둘째 사망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세번째로 이 충성된 자는 우상숭배와 행음에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2:14-16).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 회개한 자에게 만나를 먹게 할 것이며 흰 돌을 주어 거기에 새 이름을 새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2:17). 계

시록의 말씀을 우리 지식으로 깊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흰 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정체성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우상숭배와 행음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 집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론>**

**1.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

▶오늘도 세 교회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계2:18)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계3:19)

말씀하신 이는 교회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 모습, 삶, 소유,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분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분 앞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내려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계3:20)

그때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숭배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계3:21)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뭘입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가 각인되어 있고 운명이라는 체질 속에서 살아왔던 내 인생, 이것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 책망 중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잘못도 그 분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계3:22)

침상에 던진다는 의미는 고통의 의미도 있고,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문제가 행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가 골치 아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계3:23)

오늘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행음을 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가져가야 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계3:24)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사람이 맞다면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이 언약 붙잡지 않게 하고 세상 것을 붙잡게 합니다. 나,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붙잡도록, 뒤편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런 종교입니다. 복음은 열심히 아니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네가 첫 사랑을 회복했다면 그 첫 사랑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것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정말 충성된 자의 삶을 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대학 제자들은 다른 것 하지 말고 미래 준비입니다. 후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미래 준비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집사님 같은 분은 오는 사람을 놓치면 안돼요. 오는 사람을 놓고 정말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번 다니러 왔다가 집사님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이 끝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제자, 그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계3:25-27)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창을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계3:28-29)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비밀입니다. 정말로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2.사데 교회 사자에게 편지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3:1)

오늘 사데 교회에게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데 교회는 살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죽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줄 알고 막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계3:2)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외에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3:3)

이 말은 네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붙잡았기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했길래 구원을 받았냐, 이걸 놓쳤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행위, 봉사, 구제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올 신랑을 위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표에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있다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와도 괜찮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입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계3:4)

죽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사함을 받아 죄가 없

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계3:5-6)

정말로 내 이름이 주님이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3.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계3:7)

지금 나의 주인되신 주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계시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볼지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계3:8)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은 배반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관성 있게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배반하지 않고 복음에 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환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계3:9-10)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3:11)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가장 빨리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임재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이름이 새겨집니다. 우리 이름이 새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길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계3: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결론〉

▶이 결론은 곧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주에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책망받을 때 주님의 권면이 어떤 권면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회개를 해야할까? 회개라는 것은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단과 해답과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세요. 자신을 진단해야만 답이 나오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정말 사탄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 중의 결론이 뭐냐? 소로와 대로입니다. 소로는 나 혼자 가는 것입니다. 대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